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처음 19장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2번이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류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이었고, 2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적인 불과 유황의 심판이었습니다.

누가 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되면, 노아의 때의 홍수 심판, 롯의 때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 당할 만큼 악한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하십니다. 롯의 때의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삶과 이들의 삶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먼저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창6:5)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홍수가 나는 날까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롯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고 (창18:20)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범죄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표정을 짓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실상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면 죄를 짓고야 마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으시며,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경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신32:4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다. 시9:8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창18:19)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하는 의문입니다.

베드로는 벧후2:7에서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롯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50명으로 시작하여 10명에 이르기까지 6번의 반복된 질문을 여쭤보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악인들만을 심판하는 분 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벧후 2장에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7절) 라고 하시면서 9절 말씀에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면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방주를 주셨습니다. 노아라는 당대에 의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방주를 만들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의를 전파하였습니다. 롯에게는 두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롯의 손을 잡아 성밖으로 인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피하기를 허락하셨으며 그 성읍은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 2번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실제 했었고,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9:27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상의 삶을 살다가 멸망 당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사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하실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이며, 나 자신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회개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이나 죄를 깨닫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며 후회나 반성에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솔직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내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 멸망 당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벧후2:6 말씀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고전 10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고 원망해서 멸망 당했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18:23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심정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